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품질경영 우수추진 본부상 수상

한 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李龍熙)이 지난 11월 4일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인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은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품질경영추진본부로서 소속회사의 품질경영 추진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으로 품질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한 추진본부에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전기조합은 지난 '82년 전기분야 품질관리 추진본부를 설치한 이후 그동안 꾸준히 조합원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기공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앞장 서 왔고 이의 공로로 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기조합은 지난해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도 단체로는 최초로 산업표준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기조합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계기로 21세기 무한 경쟁체제를 맞아 품질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강화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기조합의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 수상 이외에도 전기조합 조합원사인 (주)금원사 (대표이사 윤기천)가 「품질경영상」을, 청우공업

(주) (대표이사 안상구)가 「가치혁신상」을 각각 수상한 것을 비롯 김영성 조일성업전기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서정기 (주)대흥기전 대표가 통산 부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파페카 11차 이사 회 · 지역회의 개최

아 세아·태평양전기공사협회연합회(FAPECA) 제11차 이사회 및 '97년도 지역회의가 지난 10월 15~16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비롯 싱가포르-대만-일본-하와이-필리핀-홍콩 등 7개국 200명 주요 전기공사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21세기 세계전기공사업계 번영을 위해 기술·정보교류를 더욱 확대하자 는 각 회원국간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폐막됐다. 다음 회의는 '98년 10월 필리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전기공사협회 회장들이 「각국의 법령이 전기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 대표들은 전기공사시장이 건설공사와 함께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극심한 인력난과 대형공사의 경우 타공정과 함께 발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朴芸熙 파페카회장(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21세기를 맞아 파페

카 회원국간의 더욱 공고한 연대의식과 상호교류로 국제적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만찬·분회의·폐막식에는 서울시의 金學載 행정2부시장과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이영수 통산부 수화력발전과장, 심상우, 김영신, 아베니도(필리핀) 前파페카회장, 로드니킴 파페카사무총장,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홍세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 고인석 한전서울지역 본부장, 전기협회의 윤희우부회장과 최정림전무, 오재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사 등 국내외 전기공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ISO 9000 인증 추진 설명회 개최

최 근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기업들이 ISO 9000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자원, 정보수집 능력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품질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품질경영컨설팅(K.Q.M.C) 및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KPC-QA)과 공동으로 ISO 9000 인증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광전공(주) 등 30여 개 업체가 참

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31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ISO 9000의 인증 필요성과 추진 배경, ISO 9000 인증 추진 방법, 중소기업의 인증 추진 사례, ISO 9000인증 심사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국품질경영 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형 컨설팅 모델을 구축해 놓고 중소기업이 희망할 경우 최단 기간내 최소 비용으로 경제적, 효율적 지도를 실시하고 앞으로 ISO 9000 인증 획득과 ISO 14000, 100PPM 환경경영시스템을 연계한 현장 및 공정관리 개선 지도에도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도 품질로의 승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계의 품질경영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ISO 9000 품질인증 획득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SO 14000 계열규격에 대한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품질시스템 인증업무와 관련한 약정을 금년초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흥회가 추천한 회사가 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증비용 중 본 심사비용의 10% 상당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에 관련된 기술 지도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진흥회는 이번 ISO 인증 추진 설명회를 계기로 신개발 제품에 대한 단체 규격 표준화 대상품목 조사 등 중전기 업계의 품질경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선(주)

네트워크사업 대폭강화

LG 電線(대표 權攸久)의 네트워크 부문이 조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사무실도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시내 중심가의 LG역전빌딩으로 이전하는 등 네트워크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LG전선은 LAN(근거리통신망), CATV, 무선통신 등 네트워크 부문의 경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전선사업과는 그 성격과 사업환경이 전혀 달라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사업群으로 독립시켜 사옥 이전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LG전선은 '80년대부터 국내에 LAN을 최초로 보급하고 국제통합 전선망, 사법부 전선망 등 대규모 국가 기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히 영업활동을 펼쳐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환경이 네트워크 컨설팅, 설계,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의 토털 솔루션화로 급격히 진전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동사는 또 지난 8월, 미국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ODS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플라이트리, 입실론, 아카시아 등 각 분야의 선진업체와 잇따른 제휴를 통해 공공기관 등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 시장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사옥이전과 조직이 모두 정비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LG電線은 최근 국내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수축하는 저온 수축튜브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수축튜브는 전자 부품에서 커넥터, 전선 등의 단말부부분이나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중간 가공재로 기존 튜브의 경우 90℃부터 수축을 시작해 수축 시간 연장에 따른 부품 가공업체(하네스업체)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LG전선이 1년 동안 2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저온 수축튜브는 전기적, 물리적 특성과 수축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축 시작온도는 60℃로 낮춰, 동급 수축튜브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수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내열 특성이 우수해 125℃에서 계속해서 사용해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 보험업협회)이 환경시험 등을 거쳐 품질로 인증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검증받았다고 LG측은 밝혔다.

LG전선은 저온 수축튜브가 전자 부품의 가공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전자 산업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기존의 열수축튜브도 점차 저온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자부품 세트 메이커들이 밀집해 있는 동남아와 유럽 등지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LG전선은 저온 수축튜브가 10개의 표준 색상 외에도 전자 제품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색상을 갖출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흥중전기공업(주)

ISO 9001 인증 획득

一 興重電機器工業(대표 趙亨紀)
 二 천안공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피뢰기, COS, 파워퓨즈 등 전 생산품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배전기자재 종합제조업체인 삼흥은 천안공장의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울들어 폴리머피뢰기 등 신제품 생산라인을 완벽해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성한 것으로 대고객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제1공장인 이천공장이 지난 '96년 10월 MOF 등 변성기기와 고장구분개폐기, 가스개폐기 등 전 생산품목에 대해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LG산전(주)

국내 최대용량 몰드 변압기 제작·납품

LG 産電(대표 李鍾秀)이 최근 국내 최대 용량의 몰드변압기를 제작하여 쌍용양회공업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LG산전이 제작, 납품한 몰드변압기는 12,500kVA에 달하는 대용량으로 그동안 유입식 변압기만 사용하여 오던 대용량 수전설비의 주변압기를 절연성능 및 방재성이 우수한 몰드변압기로 대체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LG 대용량 몰드변압기는 최적 설계를 통하여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 측면에서 유입식 변압기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G산전은 이번 대용량 몰드변압기의 납품을 계기로 향후 대용량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주변압기가 점차적으로 유입식에서 몰드변압기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 대용량 몰드변압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까지의 국내 최대 용량의 진공 주형 타입 몰드변압기는 7,500kVA급이었다.

한편, LG산전은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중국의 대련 경제기술개발구에 3000만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LG산전은 지난 10월 30일 대련공장에서 李喜鍾 LG산전 부회장, 李鍾秀 LG산전 사장, 鄭鍾旭 주중 한국대사, 薄熙來(薄熙來)대련시장, 王健林(王健林)萬達그룹회장 등 350여명의 한·중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대지 5만평, 연건평 2만평 규모로 건설된 대련공장은 가동 초기에는 승강기, 배전반(Switchgear), 몰드 변압기(Mold Transformer), 진공 차단기(VCB) 등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4개 전략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2000년까지 점차 생산 품목을 늘려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LG산전은 대련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장이 위치한 동북지역에 집중 공급해 초기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에 중국 최대 시장인 화북지역을 공략, 2000년에 5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LG산전은 향후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전자식 안정기는 동남아시아 판매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미국, 유럽시장에도 공급되며 2~3년 후에는 한국으로의 역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대련공장은 향후 LG산전의 2005년 해외 매출 목표인 67억달러(5조 2천억원) 가운데 36%인 24억달러(1조 9천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LG산전은 '91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94년 북경법인 설립, '95년 대련, 성도, 상해법인 설립 등 현재 중국지역에 7개 법인 16개 분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중국 현지 직원 732명, 당사 파견인원 4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총 4천만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 2000년까지 약 1억 4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총 11개 법인 25개 분공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기지로는 대규모 종합 생산단지로 조성될 대련공장 외에 5개 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의 모습을 갖추갈 계획이다. ■